

# 돼지 전염병 발생주의보 발령

—돼지 오제스키병 · 세균성 호흡기질병 발생주의보(9.21)  
—돼지 바이러스 설사병 주의보(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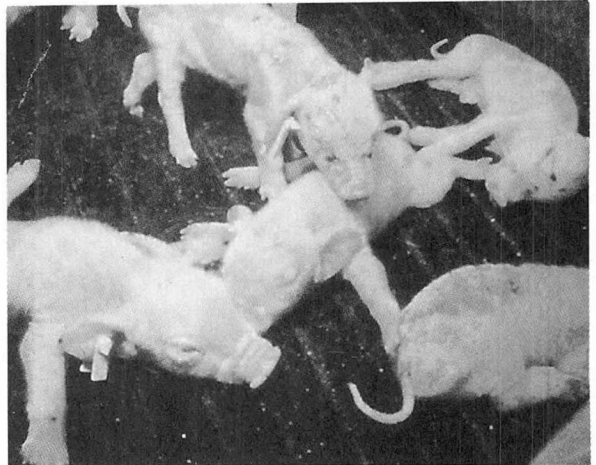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지난 9월 21일 돼지 오제스키병과 세균성 호흡기 질병의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주의보

돼지 오제스키병은 접촉 또는 공기 전파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많은 새끼돼지의 폐사와 모든의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 경남 양산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정부에서는 오제스키병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 병이 발생하는 농장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 인근 농장의 전염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육예방약을 접종토록하는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고시하여 강력히 시행하고 있어 작년보다 발생은 현저히 줄었으나 올해도 경기도와 충남 일부지역의 13개 농장에서 480두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므로서 이 병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한 방역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 주요증상

-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하는 양돈장에서는 새끼돼지가 구토와 설사를 하고 벌벌 떨거나, 빙글빙글 돌기도하며 뒷걸음을 치는 등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어린 돼지 일수록 많이 죽는다.
- 임신모돈은 사산 또는 유산을 하는 등 번식장애를 나타낸다.
- 육성돈과 큰돼지는 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며 기침을 하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7~10일 지나면 대부분 회복된다.

○ 이 병이 발생한지 몇 개월이 지나면 농장내 대부분의 돼지가 회복되고 임신모돈의 번식장애 소견도 없어지며 또한 새끼돼지도 어미 젖으로부터 이행되는 항체(모체이행항체)를 받기 때문에 폐사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 그러나 모체이행항체가 없어질 때쯤의 비육 초기에 결국 감염되어 각종 폐염이 심해지고 사료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 2. 예방대책

○ 이 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조치에 힘써야 한다.

○ 이 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돼지를 구입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즉 시장에서 중간상인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지 말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 병이 없다고 인정한 양돈장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린후 회복하여 건강하게 보이는 돼지도 일생동안 병원체를 몸속에 가지고 있으므로(잠복감염 또는 불현성감염) 이와 같은 돼지가 각종 스트레스(임신, 수송, 기후변동, 영양장애)를 받으면 다시 발병하여 병원체를 전파시키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전염원이 되기 때문이다.

○ 양돈장에 가축 중개상인 등 외부인이나 차량 등을 엄격히 통제하여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돈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 이 병이 발생하고 있는 양돈장이나 발병하고 있는 인근 양돈장은 백신을 접종하여야 하며 발병이 의심되는 양돈장은 신속히 각 시도 가축 위생시험소와 상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 그리고 발병양돈장으로 확인되어 사독백신을 6개월 이상 접종한 양돈장은 번식용 암돼지와 수돼지 및 후보돈 전 두수를 재검사하여 잠복감염된 개체를 반드시 도태하여야 이 병을 근절할 수 있으므로 인근 가축위생시험소와 협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돼지 세균성호흡기질병 발생주의보

돼지의 세균성 호흡기 질병은 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급성 폐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만성경과를 취하여 사료효율 감소, 성장 지연, 위축돈 발생 등 간접적인 영향 등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돼지의 주요 세균성 호흡기 질병으로는 흉막 폐렴, 파스튜렐라폐렴, 유행성 폐렴 및 위축성 비염 등이 있으며, '94~'95년도 수의과학연구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밤 낮의

기온차가 심하여 호흡기 질병의 조기 발생이 예상되니 양돈 농가에서는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요증상

### 가. 흉막폐렴

- 비육중기의 돼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 급성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 심한 호흡곤란과 개구호흡, 습성기침 또는 간헐적 기침을 자주한다.
- 만성형 또는 회복한 돼지는 사료섭취량 감소와 성장지연 등 위축돈이 된다.

### 나. 유행성 폐렴, 파스튜렐라 폐렴 및 위축성 비염

- 유행성 폐렴의 잠복기는 10~16일로, 3~10주령 새끼돼지가 많이 발생한다.
- 사료 섭취전 아침에 기침을 하거나 건성 기침, 재채기 등을 자주한다.
- 사료효율 저하 및 증체량 감소 등으로 위축돈이 된다.
- 파스튜렐라 폐렴은 고열, 호흡 곤란, 전신 출혈, 원기 부족, 검붉은색의 피부색, 코에서 염증성 삼출물이 배출된다.
- 위축성 비염은 초기에 가벼운 재채기, 수양성 콧물, 눈의 충혈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비출혈, 안면의 변형 및 코 비뚤어지는 증상을 볼 수 있다.

## 2. 예방대책

- 호흡기 질병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양돈장에서 새끼돼지를 구입한다.

○ 돼지가 발병하면 조기 격리치료와 돈사의 청결 및 소독을 한다.

○ 임신돈, 이유자돈, 육성돈의 입식전 반드시 돈사소독을 철저히 한다.

○ 톱밥 발효돈사는 돈사내 수분조절 장치 설치 및 환기가 잘되게 한다.

○ 양돈장 및 돈사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소독한다.

○ 발생돈사에서 함께 사육한 돼지에 유효한 약제를 조기 투여한다.

○ 돈사 내부에 통풍장치를 설치하여 돈사안의 악취를 제거하고 돈사의 청결을 유지한다.

○ 새끼돼지에 보온유지, 미네랄 및 구충제를 투여한다.

○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적기에 백신을 접종한다.

— 모돈 : 1차접종-분만 4주전, 2차접종-분만 2주전

— 자돈 : 1차접종-분만후 3주령, 2차접종-분만후 5주령, 3차접종-분만후 9주령

— 위축성비염 백신을 별도 사용할 경우 분만후 1~3일령에 분무접종을 실시한다.

## 돼지 바이러스 설사병 주의보

또한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16일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발생주의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일부지역에서 새끼돼지에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250두가 발생하여 180두가 폐사하는 등 양돈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에는 돼지전염성 위장염과 돼지 유행성설사병이 있으며 비교적 기온이 낮은 계절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으로 양돈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

히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돼지 설사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축사소독, 보온 등 설사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요증상

### 가.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전염성 위장염은 주로 추운 겨울철에 발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고, 어린일령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1주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 발생하면 거의 100% 폐사하는 전염병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부진과 구토증세를 보이며 3~4일간 심한 물 같은 설사를 하고 피부가 거칠어 지며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 때문에 폐사하게 된다.

육성돈이나 어미돼지에서는 감염되어도 증상 없이 경과하거나 약간의 식욕부진, 원기소침 등의 증상을 보인 후 회복하게 된다.

### 나. 돼지유행성 설사병

돼지유행성 설사병은 전염성위장염 증상과 매우 비슷하며, 젖먹이 새끼돼지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분만후 1주일 이내의 새끼돼지에서는 탈수현상이 매우 심하고 3~4일간 설사증세를 나타낸 후에는 일어나서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폐사율은 일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주일령 이내의 새끼돼지에서는 약 5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어미돼지는 구토, 원기소침, 무기력증 등의 증

상을 보인 후 회복되거나 또는 설사를 1주일 정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유행성 설사병의 비교>

구분	전염성위장염	유행성 설사
발생계절	겨울철에 많이 발생	연중발생하나 겨울철 많이 발생
전염성	매우 높음	높음
발생일령	어린 일령에서 많이 발생	모든 일령에서 발생
폐사율	어릴수록 높음	비교적 높음
설사형태	물같은 설사	물같은 설사

## 2. 예방대책

○ 돼지구입시 설사병의 발생이 없었던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만 구입한다.

○ 양돈장 내외를 철저히 소독함은 물론 중개상인, 타 양돈농가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독조치 후 출입토록 한다.

○ 발생된 양돈장은 새끼돼지 돈방의 온도를 약 30℃ 정도 올려줌과 동시에 치료한다.

○ 병이 발생한 양돈장의 경우 분만예정일에 가까운 임신모돈을 철저히 소독한 후 분만실로 옮기고 난 후에도 소독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모든 양돈장에서는 임신돈에 대하여 분만 4~5주전에 1차 예방접종하고 다시 분만 2~3주전에 2차 예방접종하여 젖먹이 새끼돼지에 피해를 방지한다.

○ 예방약 접종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도 접종하여 혼합감염을 막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